

대한민국 정체성 관련 국회 대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대한민국 105년 8월 10일~11일)

▶ 총합: 8개 매체(11건)

[※ 매체(숫자)는 보도횟수]

* 주요제목:

-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안 한다”
- 1948년 건국론, 이승만도 부정할 식민사관
- 이종찬 “1919년이 원년” , 윤 “건국운동” ... 건국논쟁, 절충점 찾나

통신사(3곳)

연합뉴스(김승욱 기사), 뉴시스(옥승욱 기사), 뉴스1(박응진 기사)

중앙일간지(3곳)

중앙일보(한지혜 기사) 한국일보(나광현 기사) 문화일보(정충신 기사),

기타(2곳)

머니투데이(김지영 기사, 안채원 기사), 아주경제(조재형 기사)

대외협력국

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 나와 광복회는 반대 안한다"

중앙일보 수정 2023-08-11 07:35:05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48년 건국론'은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며 "1948년 건국론은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 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고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주최했다.

이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 식민통치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억지 역사는 항일 독립운동을 의도적으로 부정, 폄훼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토막 내지 말자”고 말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선 “당시 임시정부를 내세웠던 이승만 박사를 상기한 기념관 건립을 나와 광복회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승만을 신격화해 '건국대통령,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하는가”라며 “왜 독립운동가이고 대일항쟁과 민주공화정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4·19 직전 정권욕을 탐한 대통령으로 끌어내리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우리 광복회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의 아들인 이철우 교수도 ‘1948년 건국론’에 반대했다.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1948년 이전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며 “이는 일제강점이 불법·무효였다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관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948년 건국론이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근거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대해 유일 합법 정부로 수립됐고 한반도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정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부가 난데없이 생겨난 신생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성을 가지고 존재해온 국가의 정부 또는 불법 침탈된 주권을 회복한 국가의 정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건국’ 타령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주권회복 노력을 한 선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역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자기 인식을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1948년 건국론, 이승만도 부정할 식민사관... 북한 동조하고 일제 강점 정당화"

입력 2023.08.10. 오후 5:22 수정 2023.08.10. 오후 5:37

광복회·윤주경 의원실 주최 '정체성 토론회'
"건국 정통성 논쟁, 북한이 앞장서서 주도"
"이승만도 임정 계승 천명...건국론 말 안 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대한민국 105년 대형 전광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최근 다시 논쟁이 불거진 '1948년 건국론'은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고 일제 강점을 정당화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론자들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작 자신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복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하면, 독립운동 성과로 건립한 1919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1948년 건국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정통성과 관계없이 세워진 괴뢰국 북한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쟁은 북한 정권이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거기엔 임정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 깔려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 전 대통령의 선언 내용을 들어 건국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은 건국론 같은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국회에서 세우는 정부는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했다"며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하냐"라고 일갈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1948년 건국론을 주류 역사학 담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동하려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1919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국가주권 회복과 국민주권 확립 과정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건국' 타령은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4515>

이종찬 "1919년이 원년", 尹 "건국 운동"... 건국 논쟁, 절충점 찾나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안채원 기자

2023.08.10 18: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017140184977&type=1>

기사주소 복사

| [the300]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김지영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 관련 논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국시점을 놓고 그동안 진보, 보수 진영은 1919년론과 1948년론을 내세우며 대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운동'을 '건국 운동'으로 표현하며 임시정부 수립 이후를 일체의 '건국 과정'으로 보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건국 시점에 대한 논쟁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주최했다.

이 광복회장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된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 식민통치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억지 역사는 항일 독립운동을 의도적으로 부정, 폄훼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선 "당시 임시정부를 내세웠던 이승만 박사를 상기한 기념관 건립을 나와 광복회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승만을 신격화해 '건국대통령'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48년 제헌국회를 개원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하는가"라며 "왜 독립운동가이고 대일항쟁과 민주공화정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4.19직전 정권욕을 탐한 대통령으로 끌어내리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우리 광복회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1948년 건국론은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고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며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건국론 같은 오만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광복회장은 "이제 우리 자신은 대한민국의 발전 근원이 무엇인지 정리할 때가 됐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토막내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1919년부터 계승돼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연속성에 의미를 부여해 건국일 논란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게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이니까 독립과 건국이라는 게 우리 항일운동, 해방정부 수립,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까지 일련의 과정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국이 1948년이나 1919년이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세에 보면 그것도 다 나라를 만들어온 과정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역사를)이날이 건국이나, 다음 해가 건국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여정"이라며 "임시정부 이후 정부 수립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건국의 큰 도정"이라고 했다.

건국일 논란은 2006년 8월 뉴라이트 계열이었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것이 발단이였다. 이후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역사학계에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948년 건국론을 기반으로 한 건국절 제정법이 발의되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국은 1919년과 1948년의 대립구도로 설정한 것을 많이 보는데 이는 건국이라는 용어가 '건국절 제정 운동'에 쓰이면서 마치 1948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신생국이 탄생했다는 논리가 됐다"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하면 191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졌다가 3.1운동으로 부활했다는 논리가 되고 이 역시 1948년 건국론의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복회는 1919년을 원년이라고 할 뿐"이라며 "없었던 신생국이 태어났다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체제가 변화했다는 것이 정확하다. 민주공화국을 선택했고 국가가 건국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의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회, 10일 국회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건국 논란 해소될까



대한민국 건국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복회는 1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독립기념관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라운드 테이블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을 주제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전 법제처장)가,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 국가적 계속성'을 주제로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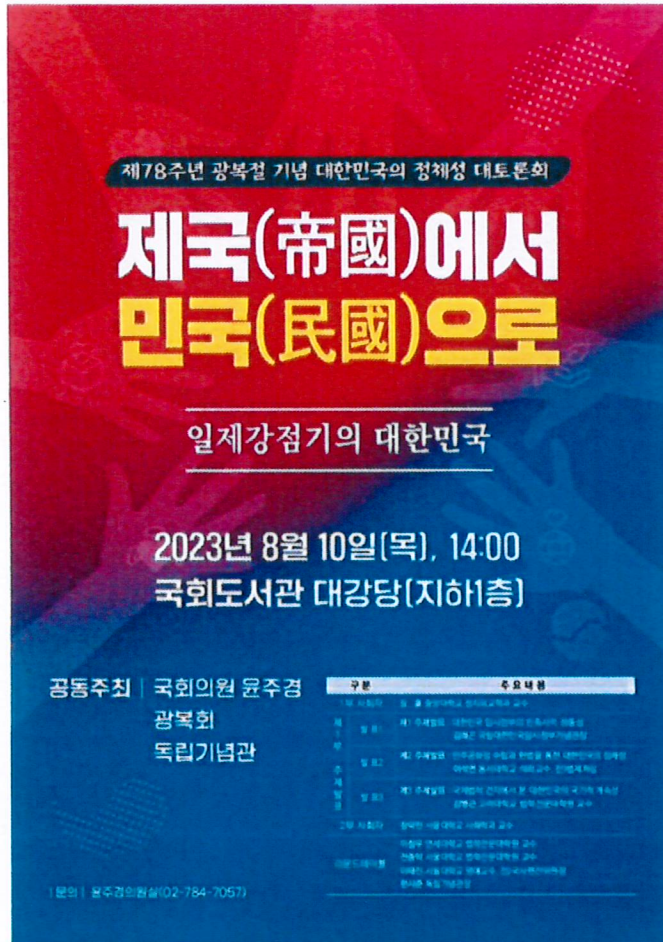
다.

2부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충신 선임기자

광복회, 10일 국회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

송고시간 | 2023-08-09 10:45



광복회,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 개최

[광복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광복회는 1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독립기념관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라운드 테이블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을 주제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전 법제처장)가,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 국가적 계속성'을 주제로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2부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kind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09 10:4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적의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 국가적 계속성)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회 2부에선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다. 1919년 '3·1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정이 처음 우리 것으로 확정됐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된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복회, 광복절 앞두고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 개최

등록 2023.08.09 16:22:55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2023년 8월 10일(목),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층)

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주경
광복회
독립기념관

구분	주요 내용
1부 사회자	장, 홍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부	제1 주제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전통성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제2 주제발표 민주공화정 수립과 헌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석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전법제정장
	제3 주제발표 국제법적 건치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적 계속성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 사회자	장미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리운도테이블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국사법연수원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 문의 | 윤주경의원실(02-784-7057)

[서울=뉴시스] 대한민국 정체성 국회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광복회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광복회가 10일 독립기념관, 윤주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체성 시리즈 2탄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30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유튜브 광복회TV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돼 전국의 유튜브 회원들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제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제1주제발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 주제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나선다.

이어 제2주제발표는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 주제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전 법제처장)이 나선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발표는 '국제법적의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 국가적 계속성' 주제로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2부에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이 펼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복회, 10일 국회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독립기념관 공동 주최

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 입력 : 2023-08-09 12:24 | 수정 : 2023-08-09 12:24



[사진=광복회]

광복회는 오는 10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라운드 테이블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을 주제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전 법제처장)가,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 국가적 계속성'을 주제로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2부에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 순서가 모두 끝난 뒤 공동주최자인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폐회사를 대신해 대토론회 행사를 정리하며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조재형 기자(grin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